

##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133)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51 -'섬 속의 섬' 추자도  
아름다운 해안가 절경을 자살특공기지로 이용

입력 : 2009. 09.10. 00:00:00



▲해상에서 바라본 추자도의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 자살특공기지 전경. /사진= 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일제 군사시설은 제주 본섬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피서지로 각광받는 섬 속의 섬 추자도. 이곳에도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이 만든 군사시설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취재팀은 추자도 탐사에 나서 일제가 자살특공용으로 구축한 갯도진지 등 11곳을 확인했다.

제주 본섬이 그랬듯이 추자도 역시 일본 본토사수를 위한 일제의 전쟁기지로 이용됐던 것이다.

추자도의 일본군 갯도진지는 산 중턱에 2곳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9곳이 분포하고 있다. 해안가의 갯도는 직선형으로 구축됐다. 구축양상은 제주 본섬에서 확인되는 일본 해군 특공기지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취재팀이 먼저 탐사에 나선 곳은 하추자도, 속칭 큰산이라 알려진 곳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7자굴로 통하는 갯도는 큰산 5부 능선 지점에, 한창 기세가 올라 무성히 자란 수목 사이에 입구를 드러내고 있다.

암반을 뚫고 굴착된 이 갯도는 전체 길이가 약 27m, 양쪽 출입통로는 각각 9m 정도 된다. 내부 벽면에는 착암기로 굴착했음을 보여주는 구멍 1곳이 남아있다. 구조는 전형적인 ㄷ자형을 보여준다. 주민들이 왜 7자굴로 불렀는지 짐작이 간다. 서쪽 방향으로 나 있는 입구에서는 잡목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지만 섬으로 둘러싸인 추자내항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취재팀은 이어 산 아래 절경을 자랑하는 해안가로 향했다. 해안 갯도는 예초리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가장 긴 것이 약 18m, 15m 정도이며, 대부분 5~6m로 소규모다. 이는 일본

군의 패전으로 인해 미완성인 상태로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추자도 큰산 중턱에서 찾아낸 일본군 갱도진지 내부.



▲일본군 특공기지 내부에서 추자도 해역 주변 섬이 보인다.

제주 본섬의 경우 직선형 해안 갱도가 대부분 30m 안팎이고, 가장 긴 것이 40m 정도인 것과 비교된다.

이곳 갱도진지 내부 바닥과 벽면에는 굴착 과정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남쪽 끝에 있는 소규모 갱도는 내부 벽면과 바닥에 30여개나 되는 착암기 구멍이 승승 뚫려 있다.

또한 18m 길이의 갱도 바닥에는 금방 폭발한 것처럼 보이는 다이너마이트 발파흔적을 볼 수

있다. 벽면에는 착암기 구멍 5~6개가 뚜렷하다. 입구에는 시멘트를 바른 석축흔적이 무너지다 만 채 일부만 남아있다. 나머지 갯도들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또 하나의 갯도는 추자도 등대전망대 능선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갯도는 절벽 중턱을 4~5m 정도 파고 들어간 형태여서 얼핏 보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처럼 보인다. 입구에서는 바로 망망대해가 펼쳐진다. 제주 본섬 방향을 향하고 있어 해안 관측 감시용으로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추자도는 어떤 부대가 주둔했을까.

추자도의 일본군은 제주 본섬에 주둔했던 58군 이하의 부대와는 다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당시 군사지도인 군산·목포부근연안방어배비요도다. 이 지도에는 추자도가 거문도와 함께 단정기지(특공기지) 엄호를 위해 보병 1개 중대를 배치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추자도 뿐 아니라 해남반도와 노화도 거문도 등 남해안의 여러 섬에도 일본군 병력이 주둔하고 특공기지 등 군사시설을 구축했다.

이처럼 일제는 제주 본섬 뿐 아니라 추자도 및 남해안의 여러 섬들까지 자살특공기지를 구축하는데 혈안이었다. 추자도의 사례는 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여지껏 실태파악이 안되고 있다. 앞으로 조사가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추자도에는 또한 소화12년(1937년)에 만든 저수지(추자 제1수원지)가 남아있는 등 일제가 일찍부터 이 섬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 [이강업씨 인터뷰]가정집 빼앗아 특공부대 등 주둔



추자도가 일본 해군 특공기지로 구축됐다는 사실은 지역주민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취재팀이 만난 이강업(81·추자면 신양1리 383·사진)씨는 "1945년 당시 신양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전남 강진으로 갔다가 약 3개월 만에 돌아와 보니 신대산에 도꼬다이(특공대)가 기지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도꼬다이부대는 약 100명 정도로 신양국민학교에 주둔했었고, 부대장 이름을 따서 가도오따이부다이라 불렀다고 기억했다.

또 가정집을 빼앗아 아까스카이부다이라 불린 일본군 20명 정도가 주둔했다.

이씨는 이어 "일본군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해안가 갯도를 구축했으며, 당시에 도 특공정

을 숨겨놓았다가 미군 함정이 나타나면 부딪혀서 폭파시키기 위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굴(갱도)을 팔 때까지는 특공정이 보이지 않았고, 구축 도중에 해방이 됐다. 신양국민학교 뒤에도 B29가 나타나면 피신하기 위한 용도로 굴을 굴착했는데 입구가 3곳 되는 걸로 기억했다. 일본군들은 패전 뒤에 무기와 식량을 싣고 목포로 떠났다고 한다.

당시 일본군들은 갱도 공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육지부에서 '널'을 가져다 많이 쌓아두었다. 이러한 목재들은 전쟁이 끝난 후 신양리와 묵리 사람들이 가져다 썼다.

이씨는 "당시 1학년부터 일본말을 해야 했고, 신사참배를 안하면 큰일날 정도로 일제가 교육을 얼마나 시켰는지 대동아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지금 돌이켜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